

잘 살피서 제대로 보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서울 열린선원 원장 법현 스님의 2600주년 성도절 법문

임진년 새해 새날이 시작된 1월 1일, 불교의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부처님이 도를 이룬 성도절이기도 했다. 성도절을 전후로 전국 사찰에서는 부처님 같이 수행하여 못 중생의 성불하기를 염원해 범회를 봉행하고 철야정진을 했다. 아래는 구암 31일 서울 열린선원에서 성도절 철야정진을 앞두고 법문한 원장 법현 스님의 법문이다. 편집자 주

축하합니다! 신타르타가 부처님 되심을 축하하고, 여러분은 이제 수행하여 부처님 되실 것이니 축하합니다. 내일은 신타르타가 6년간의 수행을 마치고 스스로 붓다임을 확인하여 고요한 기쁨을 누리 날입니다. 그것도 2600주년 깨달음 얻으신 날입니다. 얼마나 아머아머한 날입니까? 남방에서는 태어난 날도 깨달은 날도 5월 보름이라고 하는데, 뒤에 전달받은 북방에서는 낱파 계산법의 차이로 태어난 날은 4월 초파일, 깨달은 날은 12월 초파일이라고 합니다. 내일이 바로 깨달음을 얻어 붓다가 된 날이어서 붓다의 뒤를 이을 우리들은 붓다처럼 용맹정진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붓다가 거의 6년 동안 다른 스승들의 가르침대로 선정수행과 고행을 열심히 하고 스승들의 인가를 받았으나 온전히 고요한 기쁨을 누리는 상태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행으로 약해진 몸을 씻고 유미죽을 먹어 기운을 차린 뒤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용맹정진한 기간이 일주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성도일을 앞두고 일주일동안 정진하는 전통이 생겼는데 중국에서도 참선으로 정진하는 것을 선칠(禪七), 엄불로 정진하는 것은 불칠(佛七)이라하여 지금도 따르고 있습니다.

은 참선으로 밤을 새우는 뜻이지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날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경전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마치 큰 나무들이 뻗었던 숲 속을 헤매다가 고대인들이 다녔던 길을 발견 한 것 같았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이 살았던 거대한 도시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 도시를 복귀하여 다시 발전시키는 것과 같다. 나도 그와 같이 옛 길을 발견 한 것이다. 내가 발견한 옛 길이란 옛날에 올바른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요. 그 길이 바로 팔정도이다."

보리수 아래서 옛사람 길 찾아 6년고행 마치고 깨달음 얻은날 부처님따라 정진하는 성도절 우리도 참선해 옛길 밝혀야

재미있지요? 처음 깨달은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어서 우리가 따르고 있는데 부처님은 옛날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요 그 길은 여덟 가지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면 옛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깨달음을 얻은 순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 마음은 형성되지 않은 것을 이루었네. 온갖 갈애(渴愛, tanha) 다 끝내 버렸네." 형성된 것은 다 부서집니다. 그러기에 부서지지 않는 고요한 기쁨인 열반(涅槃, nibbana)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목표인 열반을 이루면 온갖 갈애가 없어지고, 갈애를 모두 없애면 형성되지 않은 것을 이룹니다. '열반이란 깨달은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열반이라는 것을 보아야 깨달음' 인지를 가능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수 없는 삶의 괴로움을 갖게 하는 윤회의 원인인 집착기가 없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래

서 부처님은 읊었습니다. "너는 다시는 집 짓지 못하리. 너의 모든 서까래 부서지고 마룻대 또한 부러 졌도다."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집짓는 이를 찾아서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오 집 짓는 이여, 드디어 너를 찾아냈도다"라고 그 첫 기쁨을 노래하셨지요. 집 짓는 이라고 비유되는 마음(心)과 마음부수(心所)의 작용 그리고 그것들이 지어내는 여러 가지 현상과 규칙들(法, dhamma)을 잘 살피서 알게 되면 집짓는 이가 집을 지을 수 없게 됩니다. 마치 햇살이 들어오기 전에는 곰팡이 등 균들이 살아서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어내지만 밝고 따뜻한 햇볕이 쬐면 균들이 없어지고 질병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이라도 생겨난 것은 변하게 마련이고 부서지게 마련입니다. 인생에 비유하면 아무리 지식과 돈과 아름다움이 흘러넘쳐도 끝내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흐름에 밀려서 스스로의 의지와도 관계없이 수 없는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태어남은 언제나 실로 괴로운 것"이라고 말이지요. 세상에 태어난 누가 괴롭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역사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난 이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오늘의 여러 곳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이들도 모두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부처님 말씀을 빌어 말하자면 "그러나 찾지 못한 채 수많은 태어남의 윤회 속을 줄곧 서둘러 왔었네" 때문입니다. 바로 집짓는 이를 찾지 못해서라는 것이지요. 원인을 찾지 못하면 결과를 얻을 수 없지요. 병의 원인이 마음의 문제인지, 음식의 문제인지, 휴식의 문제인지, 과로나 부딪침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괴로운 이유, 괴로운 삶의 모습을 이어가는 이유 즉 윤회를 계속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에 들끓고 슬픔에 가라앉기를 계속하는 윤회에서 벗어나 고요한 기쁨, 움직이지 않는 평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을 "비구 바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에게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참석하신 대중 여러분을 비롯해 "누구나 이 법문을 듣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청정한 수행을 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청정한 수행을 계속하면 부처님처럼 윤회에서 벗어나 고요한 기쁨, 움직이지 않는 평화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죄끔' 해도 될까

요? 덮어놓고 오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방법을 제대로 익혀서 수행하되 "이 몸이 가족과 힘들, 빼만 남고 피와 살은 다 말라서 죽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정등각(正等覺)을 얻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노라"라고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 6년 동안 다른 이들의 가르침을 따라 함께했던 선정(禪定, samatha)을 기본으로 하고, 모든 것에 주의를 온전히 기울여 날 마음이 되지 않고 온 마음(專念, sati)이 되게 하여 몸과 마음의 현상을 자세하게 살폈습니다. 세밀하고 자세하게 잘 살피는 것을 위빳사나(觀, vipassana)라고 합니다. 몸(身, kaya)과 감각(受, vedana)과 마음(心, citta)과 지각대상(法, dhamma)을 살피는 것이 바로 붓다에 이르는 뛰어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하여 전생(前身)도 보고, 업(業)의 작용도 알고, 연기(緣起)를 깨달아 윤회를 벗어나는 길을 알고 고요한 기쁨, 움직이지 않는 평화를 얻으신 것입니다.

태어난 모든 것들 괴로움 있어 윤회를 계속하는 이유 알아야 화두 통해 깨달음 얻으려면 문제 알았으니 답에 집중을

이런 말씀을 제가 무엇으로 했고 여러분은 무엇으로 알았습니까? 말씀으로 하고 말씀을 들어서 이해하시지요? 그냥 다 이해가 바로 되시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나라 사람에게 우리말로 하는데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요? 말하는 사람의 여러 조건과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이해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지요. 그 말씀에 들어있는 '참뜻(眞意), 본뜻(本意), 숨은 뜻(密意), 행간의 뜻(間意)'을 알아내려고 무던히 애를 쓰지만 쉽지 않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스스로도 행복하고, 관계있는 이와도 평화로운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송시대 수행자들이 말씀(話頭)을 주제로 명상하게 한 것이 간화선(看話禪)의 전통입니다. 화두의 두(頭)는 뜻이 없는 허사라 '말머리'가 아니라 '말,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승불교를 중심으로 불교전파가 이루어져 간화선 수



성도절날 불교에 입문한 열린선원 법현 스님은 법생 참선하던 교고시절을 회상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있어 게으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법문했다.

행전통이 활발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위빳사나를 수행하던, 간화선을 수행하던 각자의 기호와 해오던 방법을 따라서 하십시오. 위빳사나를 바로 하기는 힘들 것이니 사마타를 하시는 분은 들숨과 날숨을 자세히 관찰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이 코를 통해 드나들면서 부딪치는 접촉점을 찾아보십시오. 화두를 어느 스승으로부터 받으신 분은 그것으로 정진하시

고 오늘 처음이신 분은 '오늘 이 자리에 육체가 온 것인가? 정신이 온 것인가?'를 문제 삼아 해답을 구해보십시오. 주의할 것은 문제는 이미 알았으니 답을 찾는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수행하던 몸과 마음의 현상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을 잘 살피서 제대로 봅시다! 제대로 말합시다! 제대로 생활합시다!

佛紀 2556年 壬辰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

화쟁 평화중앙교원 현대 불교 조계종

종 정 덕현 벽운
부종정 성주 회천

원로원장 효덕 규정원장 해원 총무원장 동화 종회의장 성해

◇총무원 임원, 각교구장, 종회의원
법성 성해 성문 법진 연담 법인 지밀 천봉 도선 금산 고암 성광 해원 시광 정철 보운 고천 광운 해초 해원 흥덕 종현 덕행 상락 해일 자현 청정 금화 혜선 효정 정해 원욱 화진 고산 성진 해광 월산 해광 원각 진공 자행 해초 자명 명안 자산 수경 성안 도헌 성수 진광 현공 진산 해인 이척 무산 성일 현광 보현행 보리심 천모성월 외 종도일동

본 종단 입증을 적극 환영합니다

■총무원 : 대전 동구 가오동 293-1 보광사 / 총무원장·주지 동화 전화 042)283-5896

대한통일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종정 벽암

귀의 삼보하옵니다.

본 종단은 부처님의 불법을 널리 펼쳐 불국정토를 이루고자 하는 큰 서원으로 참된 교육을 통한 정법 포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불심을 모아 함께 정진하실 승려, 법사님을 널리 모집합니다.

【 개인사양의 자산과 관리는 일체 주지 권한이며, 총무원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

- 입증서류 입증 등록신청서 1부,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부,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도교육 종도 강원교육, 집체교육, 사미기본교육, 통신강의 (사미율의, 초발심자경문, 치문, 아함경, 방등경,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외 천수경, 반야경, 금강경요개, 유식삼십삼, 선문철요, 정토삼부경, 원시불교, 부파불교, 불교계론, 기타 등등)
- 총본산 : 경남 밀양시 상남면 남산리 444번지 자비선원 (구, 백운암)
- 전 화 : 055)391-3014(선원장실), 3004.3024(종무소) 팩스 055)391-3016